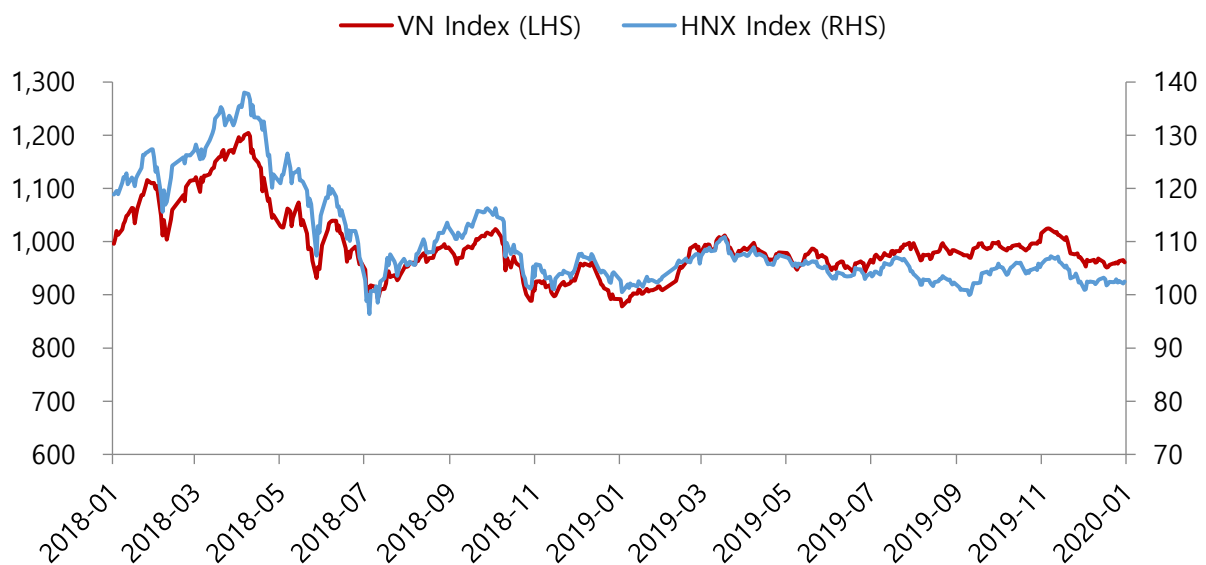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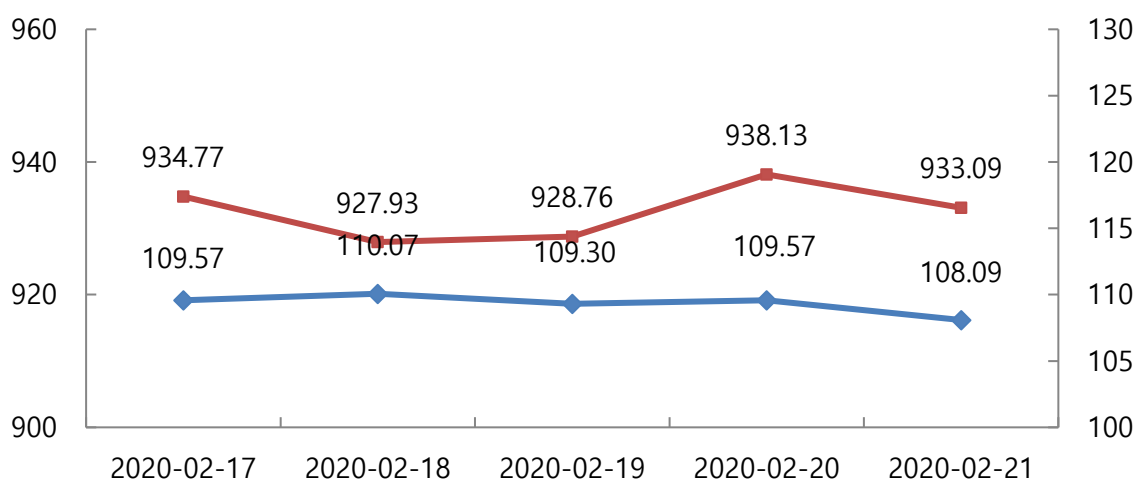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이번 주 베트남 주식 시장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주 3일 연속 하락한 VN 지수는 목요일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VietinBank, Vietcombank, BIDV 등의 금융회사들이 부진해 금요일 전일 대비 5.04 포인트 하락하며 933.09로 장을 마감했다. HNX 지수는 화요일 110.07로 110선을 넘었지만 이후 삼일 연속 하락하며 108.09로 장을 마감하였다.

■ 개별 기업 뉴스

○ Unicar 과 ZuumViet, 베트남 차량공유 시장에 뛰어든다

베트남 현지의 스타트업 기업인 Unicar 과 ZuumViet 은 차량공유 어플리케이션과 배달 및 다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중부 지방의 Nghe An 성에 기반을 둔 Unicar 는 성의 수도인 빈타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Unicar 의 서비스는 Unicar(자동차 호출 서비스), Unibike(오토바이 호출 서비스), Uni Fast(고속 배송 서비스), Uni Truck(물류 서비스), Uni Rent(렌트 카 대여 서비스)등이 있다. Unicar 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Hue 와 Nha Trang 으로 가까운 미래에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어플리케이션 ZuumViet 은 출시를 준비하며 운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ZuumViet 은 ZuumBike(오토바이), Zuumcar(4 인승과 7 인승), ZuumLux(아우디, 벤츠와 같은 고급 승용차)등의 서비스를 운영 예정에 있다.

○ 베트남 내 외국 기업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운영 어려워져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재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의 바코드 리더와 센서들을 제조하는 Datalogic 는 지금까지 원자재와 부품들의 수입을 중국에서부터 조달하였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400 여 명이 휴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LG, 삼성과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호치민시는 정부에게 호치민시의 2000 개 이상의 공장이 운영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기계, 부품과 원자재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화물 수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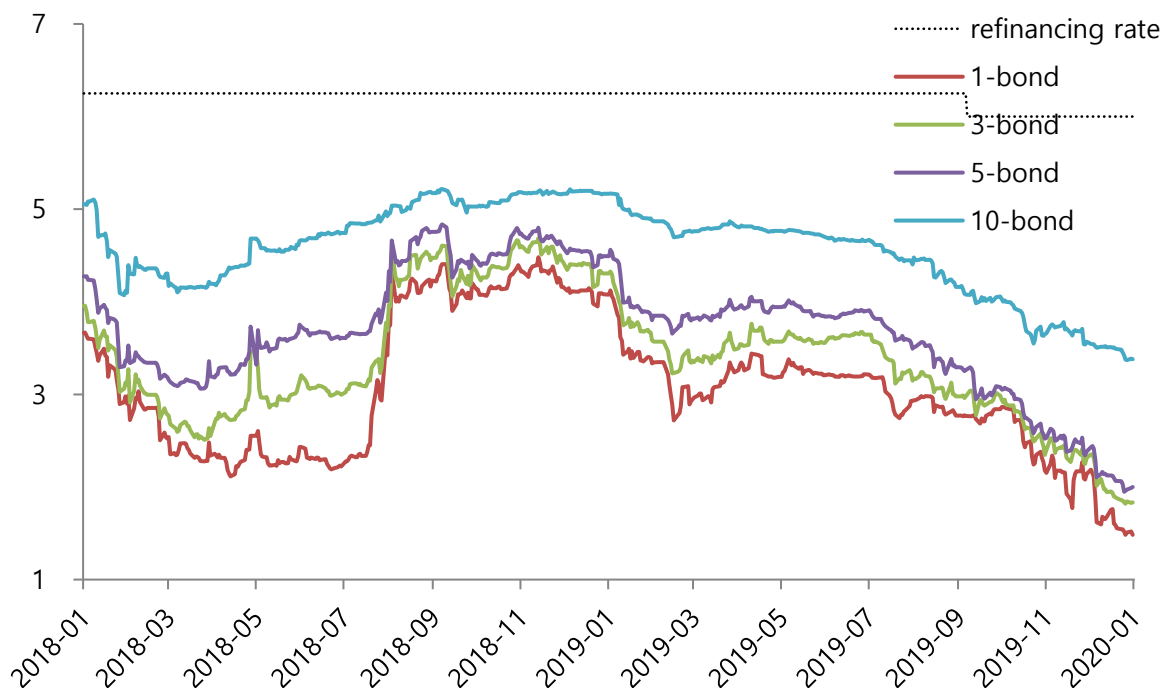
2. 주요 경제 동향

■ 코로나 진정되면 베트남 FDI 증가할 것

외국인 투자의 허브였던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입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가 다른 나라들로 대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나라들에게는 한편으로 투자를 유치할 기회이기도 하다. 기획투자부의 Do Nhat Hoang은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베트남으로 투자가 옮겨질 수 있다” 고 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하노이 지부장 Takeo Nakajima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향후 122개 일본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며 이중 42.3%는 베트남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에서 운영 중인 일본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더불어 증가하는 생산 비용으로 인해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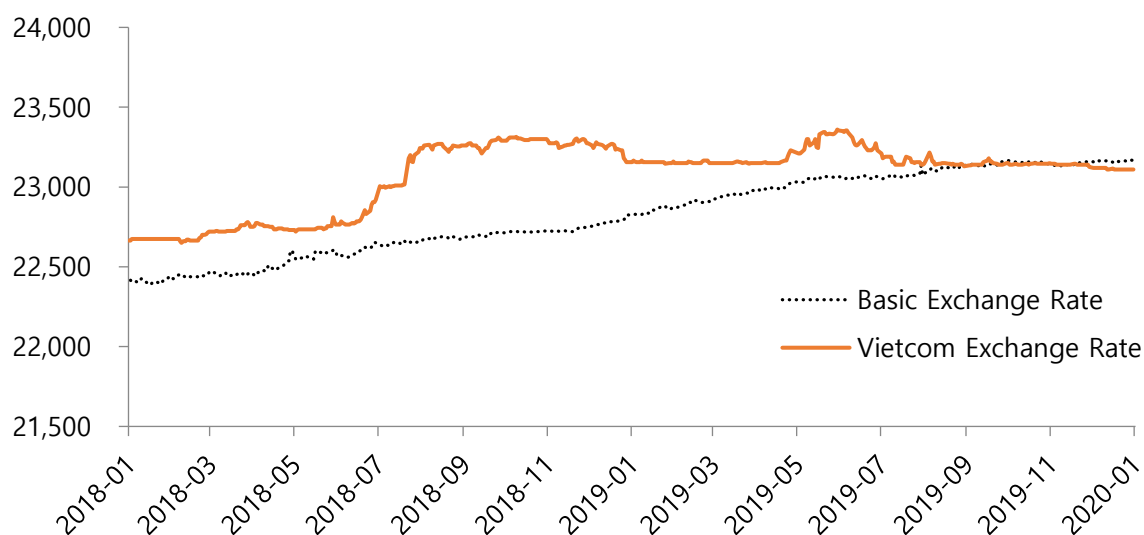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20-02-21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45	23,175	23,315



■ **BIDV,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받은 개인 고객들에게 도움 주다**

BIDV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피해를 받은 개인 고객들에게 지원을 위해 5조 동에 이르는 금융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농업, 수출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고객들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 혹은 거래와 관련된 BIDV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요식업과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첫 번째 지출 이후 최대 4개월 동안 매우 안정적 이자율 5.5%로 대출이 가능하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대형 쇼핑몰, 도시 유통시장 장악하다**

CBRE는 대형 쇼핑몰들이 호치민의 부동산 시장을 도시 프로젝트의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중심으로 장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컨설팅 기업 CBRE는 Thu Thiem의 신도시 지역이 베트남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와 쇼핑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호치민의 쇼핑몰들이 소규모 쇼핑몰에서 밀레니엄 세대를 겨냥한 경험 중심의 쇼핑을 제공하는 대규모 쇼핑몰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부동산컨설팅 기업인 JLL도 올해 Satra Center Mall, Socar Mall, Elite Mall과 Central Premium Mall 등의 비 도심 지역 쇼핑몰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베트남 환경자원부, 비 거주 부동산 이용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발표**

베트남의 환경자원부(MoNRE)는 비 거주 프로젝트의 허가를 규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각 지역 부서들에게 발송했다. 2017년 관광법 제48조에 의하면 콘도텔 및 다른 비거주 부동산 상품은 숙박과 요식업으로 여겨지며 이는 2018년 6월의 총리 결정 시행령 27/2018/QĐ-TTg을 따른다. 2018년 12월 14일 환경자원부령 시행규칙과 토지법에 따르면 상업의 목적을 띤 토지는 상업용지로 분류가 되며 상업용지 투자자의 토지 이용에 대한 내용은 토지법 제126조와 15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최대 50년까지 토지를 대여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이 적은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토지인 경우 7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최근의 발표가 콘도텔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였지만 쇼텔(shoptel)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가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 한국투자신탁운용, 베트남 HV 캐피탈 매수

한국투자신탁운용(KIM)이 베트남 HV캐피탈을 매수했다.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KIM이 베트남 펀드 회사 HV캐피탈의 250만 주주식을 사들이는 계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KIM은 HV캐피탈 주식 99%를 매입하게 됐으며 나머지 1%는 윤한진과 안종훈 등 두 명의 한국인에게 균등하게 분할됐다. SSC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HV캐피탈은 호치민시에 거점을 둔 펀드 관리 회사이며 총 자본금은 254억 동(109만 달러)이다. HV캐피탈은 지난 2018년 23억 3000만 동(10만 272달러) 이익을 냈으나 지난해에는 21억8000동(9만3817달러)의 세후 손실을 기록했다.

(More information [https://news.g-enews.com/ko-](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2180735073889b5d048c6f3_1/article.html?md=20200218075541_R)

[kr/news/article/news_all/202002180735073889b5d048c6f3_1/article.html?md=20200218075541_R](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2180735073889b5d048c6f3_1/article.html?md=20200218075541_R))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jiho@jplawvn.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